

또 '퇴장' 악재...광주FC 4연패 '수렁'



K리그1 6라운드 김천과 원정경기서 1-2로 저 상대 자책골로 선취점...수비 불안에 역전 당해 K리그2 전남, 부산 1-0 제압하며 3연승 '질주'

광주FC가 4연패의 늪에 빠졌다. 광주는 지난 6일 김천중흥전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 경기에서 1-2 패를 기록했다. 전반 6분 상대 자책골로 선취점을 가져가고도 기록한 뼈아픈 패배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개막 2연승 뒤 4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5라운드 인천전 '수문장' 김경민에 이어 '주장' 안영규가 이날 레드카드를 받는 등 퇴장 악재도 연이어 발생했다. 전반 6분 만에 가브리엘이 상대를 흔들었다. 이희균이 짝어울린 공을 가브리엘이 가슴으로 받은 뒤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다. 공은 상대 수비수 박승욱의 발에 맞은 뒤 김천 골대로 향했다. 처음에는 가브리엘의 골로 기록됐지만, 경기가 끝난 뒤 자책골로 수정됐다. 광주가 일찍 골을 만들어냈지만 올 시즌 고된 지점이 된 '수비'가 흔들렸다. 전반 추가 시간에 광주가 동점골을 허용했다. 김천 김대원이 오른쪽에서 띄운 크로스가 문전에 있던 정치인의 머리로 향했다. 정치인이 헤더를 시도했고 광주 골대가 뚫렸다. 원점에서 시작된 후반전, 광주가 아쉬운 페널티킥으로 역전골을 내줬다. 후반 11분 김천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와 경합하던 광주 수비수 포포비치가 공을 향해 뛰어오르다 핸드볼 반칙을 기록했다. 김천의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정치인이 키커로 나섰다. 앞선 인천전에서 박스 밖에서 핸드볼 반칙을 하면서 퇴장을 당한 김경민을 대신해 골키퍼 장갑을 낀 이준이 정치인을 마주했다. 긴장감 넘치던 순간, 정치인이 방향을 숙이고 골대 왼쪽을 뚫으면서

김천이 역전에 성공했다. 여기에 '퇴장' 악재까지 겹쳤다. 후반 33분 공을 다루던 '주장' 안영규가 공을 쳐낸 뒤 넘어지면서 안중민의 발목을 밟는 장면이 나왔다. 안영규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퇴장했다. 수적 열세까지 겪은 광주는 가브리엘과 빅틀을 내세워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은 연출했지만 끝내 추가골을 넣지 못한 채 포항-대구-인천전 패배에 이어 4연패로 경기를 마감했다.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부산아이파크의 안방에서 3연승을 달렸다. 전남은 7일 부산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부산과의 K리그2 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김종민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김포와의 홈 개막전에서 4-0 승리를 거뒀던 전남은 천안시티FC전 1-0승리에 이어 원정경기에서 3연승에 성공했다. 7개의 슈팅을 날리며 4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는 등 거세게 부산을 공격했던 전남이 후반 28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발디비아가 왼쪽에서 공을 띄웠고, 상대 골키퍼 구상민 손 맞고 공이 뒤로 흘렀다. 골키퍼 뒤에 있던 김종민이 원반로 그대로 공을 밀어 선제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이후 후반 추가 시간 8분까지 실점 없이 부산을 봉쇄하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다. 지난 시즌 1승 1무 1패를 기록했던 두 팀의 2024 시즌 첫 대결에서는 집중력에서 앞선 전남이 웃었다.



광주FC의 가브리엘이 지난 6일 김천중흥전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K리그1 6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I페퍼스 박정아·박사랑 국가대표 발탁

발리볼네이션스리그 5월 14일 개막...브라질 등 7개국서 열려

광주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박정아(사진 뒤)와 박사랑(사진 앞)이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대표팀에 발탁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최근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 7개국 도시에서 열리는 2024 국제배구연맹(FIVB) 여자 VNL에 참가할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명단을 발표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는 박정아·박사랑(이상 페퍼스) 등 총 16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세터는 박사랑, 김다인(현대건설), 김지원(GS칼텍스)이 이끌고 김연전(현대건설)과 문정원(한국도로공사)이 리베로로 수비를 맡는다. 이주아(흥국생명), 정호영(정관장), 최정민(IBK기업은행)이 미들 블로커로 뛴다고, 아웃사

이드 히터는 박정아와 강소휘(GS칼텍스), 이소영(정관장), 정치준(현대건설), 표승주(IBK기업은행)까지 5명이 선발됐다. 아포지 스파이커로는 김다은(흥국생명)과 이선우(정관장)가 합류하면서 대표팀 명단이 완성됐다. 오는 15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대표팀은 5월 1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2주차), 일본 후쿠오카(3주차)를 순회하며 VNL 예선 경기를 펼친다. 한국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VNL 27연패를 기록하며 FIVB 랭킹 40위로 추락했다. 한국은 지난달 18일 선임된 모랄레스 감독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나선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전남 체고 선수들 전국체고체전 활약

광주 56개·전남 26개 메달 획득 레슬링, 태권도, 펜싱, 근대 5종, 핀수영 등 총 13개 종목으로 나누어 치러졌다. 광주체고는 사격을 제외한 12종목에 출전해 금 13개, 은 15개, 동 28개 등 총 56개의 메달을 따냈다. 육상, 사격, 양궁, 레슬링, 태권도, 근대 5종 등 6종목에 출전한 전남체고는 금 11개, 은 7개, 동 8개로 총 2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민재 5경기만에 선발...뮌헨은 역전패

분데스리가 하이텐하임에 2-3

한국 축구 수비의 핵 김민재가 5경기 만에 선발로 돌아왔다.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승격팀에 두 골 차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뮌헨은 6일(현지시간) 독일 하이텐하임의 포이트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8라운드 하이텐하임과 원정 경기에서 2

-3으로 패했다. 에릭 다이어와 경쟁에서 밀려 4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서 빠졌던 김민재가 모처럼 토마스 투헬 감독에게 주전 센터백으로 낙점받아 처음부터 그라운드를 밟았다. 지난달 1일 프라이부르크전(2-2 무승부) 이후 5경기 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른 김민재지만 팀의 역전패를 막지는 못했다. 전반 2골을 먼저 넣어 승기를 잡는 듯했던 뮌헨

은 후반에만 내리 3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다요 우파메카노와 중앙 수비로 호흡을 맞춘 김민재가 후반 실점 장면마다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뮌헨 진영까지 날아온 골킥을 김민재가 헤딩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실점으로 이어졌다. 1분 후에는 팀 클라인딘스트에게 동점 골까지 내줬는데, 이때도 페널티지역으로 크로스가 넘어오자 클라인딘스트가 김민재의 뒷공간을 파고들어 득점했다. 후반 34분 클라인딘스트가 멀티골을 완성하면서 짜릿한 역전을 이끌었고, 이후 뮌헨의 골잡이들이 침묵하며 하이텐하임이 '대어'를 잡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댓글부대, 씬, 둔: 파트2
- 2관 고질라 X 공: 뉴 엠파이어
- 3관 비키퍼, 오멘: 저주의 시작
- 4관 댓글부대, 씬, 마더스
- 5관 유미의 세포들 더 무버, 남은 인생 10년
- 6관 파묘,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
- 9관 댓글부대
- 7관 싸네커를 파묘
- 8관 싸네커를 파묘, 1980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4월

광주상설공연

2024년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